

오늘의 기사관

행사 (24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 호텔 4층 연회장. 선한승 한국노년교육원장이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기 위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에 관해 강연.
▲광산구 독거노인 정년식 건강식품 전달행사=오전 9시 송정2동사무소.
▲유비쿼터스 여수엑스포 시티 추진을 위한 포럼=오전 10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산학연기관 1층 합동강의실. 한국 U시티협회 한호현 위원이 'Ubiquitous technology가 Expo 운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 고려대 정창덕 교수가 '유비쿼터스 여수엑스포시대 비즈니스모델',전효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사가 'u-Travel 세대의 여수엑스포 추진방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강연회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강연회=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 정찬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서남해안 발전과 여수엑스포'라는 주제로 강연.
▲토지정의 실현과 바른 부동산정책수립을 위한 제 1회 토지학교=오후 7시30분 조선대 본관 남쪽 4층 다목적세미나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25일)
▲제 98회 동부지역 게이브대회=개회식 오전 11시 여수시 여천초교 운동장.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구례·곡성 등에서 72개팀 400여명 참여 예정.
▲제 4회 담양메타세콰이어 마라톤대회=개회식 오후 1시30분 담양군 추성경기장. 740여명이 3

개 코스(하프·10km·5km)에 참석 예정.
▲에너지바로알고쓰기 웅변대회=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여수 진남로상가 문화의 거리 중공기념리 거리 축제=오후 5시 여수시 진남로상가 오거리 특설 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합창단 합동공연=24일(금)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한·일 우호교류연주회.
▲제 8회 무등음악회=24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THE 신승훈 SHOW 'Color of Romance'=25일(토) 오후 7시, 26일(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똌어?'=

25일(토) 오후 1:3시, 26일(일) 오전 11시, 오후 1: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33회 토요일속여행=25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올해 마지막회. '다시 처음으로'라는 주제로,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상 수상자(박애리·김연자) 초청 공연. 앞은반 사물놀이,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등.
▲토요상설 문화공연=25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공연장.
▲스페인, 세기의 거장전=24부터 12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안토니 타피에스 등 스페인 유명작가 작품 40점 전시.
▲수묵회 회원전=29일까지 공동 상계갤러리. 강형채, 구영주, 김인선, 박안수, 박희석 등 수묵회원 작품 전시.
▲민경대 Genomic Art전=25일까지 공동 나인갤러리.유전적 미술을 추구하고 있는 민경대 교수의 작품전.
▲한·중 미술문화교류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조선대학교와 중국 치저허얼 대학교와의 교류전.

뉴스퀴즈

39. 한국 피겨 선수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피겨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 한국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김연아 ②진선유 ③변천사 ④남나리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에게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유명 연예인들이 출몰중인 대한민국 영화대상이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아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지난 19일 열린 영화 대상은 괴물의 독무대였다. 작품상·감독상·촬영상·조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다. 남녀 주연상은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장진영이 차지했고, 조연상은 '짜패'의 이범수, '사생결단'의 추자현에게 돌아갔다. 추씨는 신인여우상까지 동시에 받았으며, 신인남우상은 '왕의 남자'이준기가 받았다.
특히 여배우들의 의상은 이날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 장미화를 비롯해 가슴이 깊게 파인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나온 장진영·이승연·김민정·현영·엄정화 등을 보려는 네티즌들의 검색 빈도가 높았다.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영화대상 시상식 여배우들 과감한 의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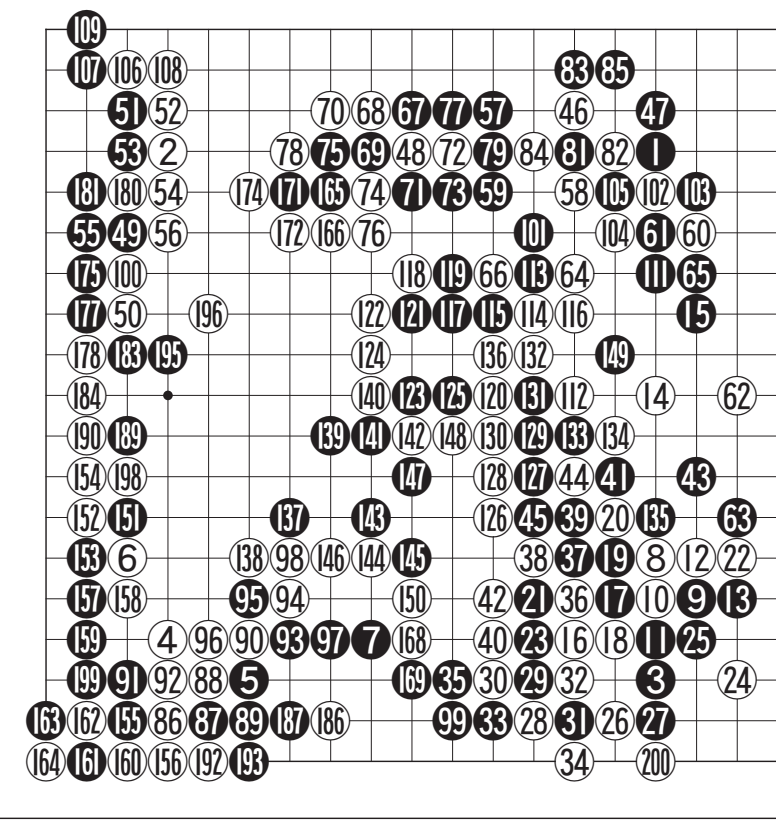
김연아도 화제가 됐다. 지금까지 세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한국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김연아의 대회 경기장면 등의 동영상상을 보거나 관련 사진들을 퍼나르는 네티즌도 많았다.
지난 15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송승헌 소식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레이싱걸 출신 탤런트 오윤아의 결혼 소식도 관심을 끌었다. 오윤아의 예비 신랑은 모 회사의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송씨(31)로 두 사람은 내년 1월 5일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 2000년 레이싱걸로 첫발을 디딘 오윤아는 S라인 몸매를 자랑하며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김수현 작가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SBS 월화드라마 '눈꽃'도 순위에 포함됐다. 눈꽃은 '김수현 사단'으로 불리는 연기파 배우 김희애가 여주인공 이강애 역을 맡아 같은 시간대 편성된 '주몽'과 시

창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랩보 슈터' 문경은(35·서울 SK)의 자살골도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문경은은 지난 19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대구 오리온스전에서 상대팀의 골키퍼 토포스를 차단하려고 점프했는데, 문경은의 손을 맞은 볼이 그대로 림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황당한 자살골 동영상은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로 인터넷에 급속 확산됐고 한때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외 개그맨 유재석과 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열애 소식도 화제다. /김지음기자 dok2000@



내년 1월 결혼식을 올리는 레이싱걸 출신 탤런트 오윤아.

주간 금상징 검색어 (네이트닷컴 제공)
1위 대한민국 영화대상 6위 삼청동길
2위 김연아 7위 오윤아 결혼
3위 노랑진박 8위 눈꽃
4위 콩스 9위 민정부인
5위 송승헌 10위 문경은 자살골



행운의 결승행 총보(1~200)
제15회 광일승
광주·전남·전주·전북·전남대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단편전 우승컵을 거머쥔 직장동료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 판은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박광주 5단이 마지막에 대실착을 범해 정장호 5단이 행운의 승리를 거뒀다.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집중력이 있어서는 정 5단이 조금 앞선 듯, 우하귀에서 39에 미리 져놓지 않은 박 5단의 방심을 틈타 42까지 흑 석점을 깨끗히 때려냈다. 이후 상변에서 과욕으로 손해를 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백의 반편운영이 흑을 앞선 것으로 보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원성진 7단, 농심배 탈락
원성진 7단이 23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제6국에서 중국의 평천 7단에게 308수 끝에 흑 3점 반패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조현원, 최철한 9단이 탈락한 데 이어 원 7단까지 고배를 마시며 따라 박영훈과 이창호까지 2차전에 투입해야할 위기에 몰렸다. 평천 7단은 4연승을 거둬 따라 연승보너스 상금 2천만원을 손에 넣게 됐다.
5연승에 도전하는 평천은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일본의 야마다기미오와 대국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가 주어지며 우승상금은 1억 5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음 10월 4일 丁巳)
子 36년생 멀리서 협조자가 나타난다. 48년생 희망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60년생 문서는 귀찮으나 실리는 없다. 72년생 큰 계획으로 일한다. 84년생 재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17, 45
丑 37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4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61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한다. 73년생 시기가 곱롭하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85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흐린다. 행운의 숫자: 03, 36
寅 38년생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 50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62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을 태우니 자세하게 살펴보라. 74년생 이웃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09, 35
卯 39년생 의행을 즐기고 실속을 위주로 진행하라. 51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3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라. 75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01, 31
辰 40년생 새로운 투자는 내일로 미루고 현금을 점검하라. 52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64년생 마음은 갈광질광 짐작도 못할 수니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를 보내라. 76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행운의 숫자: 19, 44
巳 41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 서로 이해하라. 53년생 끈기 있게 진행해도 심성이 꺾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있다. 65년생 의행은 즐기고 실리는 늘려야 산다. 77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든 부러우라. 행운의 숫자: 04, 43
午 42년생 너무 자신만만 하지마라 복병이 있다. 54년생 협력자는 나타나 내내 사색이 조심하라. 66년생 재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78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 생방송이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1, 37
未 43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되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55년생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동시에 있다. 67년생 직장주와 아내사이에 불협화음 발생한다. 79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8, 34
申 44년생 재물이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6년생 흉과 복이 다반사니 심신을 다스려라. 68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지도 없다. 80년생 아내와 불화를 대화로 노력하면 애정으로 변화하라. 행운의 숫자: 11, 40
酉 45년생 주변의 간섭이 자신의 길을 어렵게 하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57년생 규묘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69년생 자신의 발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81년생 좋은 매너에 좋은 처사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07, 26
戌 46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나 자중이 최선이다. 58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70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온다. 82년생 급하면 그러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5, 38
亥 47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웃에게 배풀어라. 59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 보이라는 시기다. 71년생 걱정의 98%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83년생 심상의 안정이 심마리를 쥐고 있으니 수안하며 보내라. 행운의 숫자: 14, 29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Why do you say that? (English), 2. 今日の朝は、お粥(かゆ)かい? (Japanese), 3. 非...否否 (Chinese), 4. 反哺之孝 (반포지효) (Korean). Each column includes a question, a dialogue, and a vocabulary list.